

#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 Attachment to Paren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 사 백 지 숙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Lecturer: Baik, Jeesook

###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IV.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two broad indices of adolescent adaptation -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Also the association of parental attachment bonds to college adjustment would be mediated by self-esteem was examin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included 381 college students (176 men, 205 women). As expected, parental attach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f-esteem and college adjustment.

Gender of parent differences emerged, in which attachment to father was a more important predictor of college adjustment than was attachment to mother. Self-esteem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ollege adjustment. Furthermore, self-esteem was a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college adjustment.

## I. 서론

오늘날 발달의 생애 지향적 접근(life-span approach)은 애착 연구에도 반영되어, 초기 영유아 시기의 애착 연구를 넘어 이제 청소년기 부모-자녀 간의 애착 연구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청소년기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연구들은 청소년기 발달과 적응의 실마리를 애착관계에서 얻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청소년기의 애착을 우리는 Bowlby(1969, 1973, 1980)의 내적작업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Bowlby(1969, 1973, 1980)는 영아가 주양육자(주로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관계가 어떻게 훗날의 발달과 적응의 초석이 되는가를 내적작업모델의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내적작업모델이란 애착과 관련된 경험, 감정, 사고를 조직하는 인지 구조로서, 초기 애착관계의 유형을 토대로 하여 자아와 양육자 그리고 세상에 대해 형성되는 정신적 표상(representation)을 말한다. 내적작업모델은 생후 1개월이면 형성되기 시작하여, 1년이 되면 낯선상황에서 영아가 보이는 행동의 개인차가 내적작업모델에 있어서의 개인차로 나타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내적작업모델은 아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기억을 형성해 가는 규칙을 제공하며, 또한 아동 자신, 양육자, 그리고 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해 아동이 인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규칙은 애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며, 아동의 사고와 언어 속에서 반영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내적작업모델은 아동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환경과 접하며, 앞으로의 발달단계에서 맞이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Bowlby, 1980).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양육자에 대해 언제나 다가갈 수 있고, 반응적이며, 도와주는 존재로서의 내적작업모델을 가지며,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스럽고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내적작업모델을 갖게 된다. 이들 아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며,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필요하다면 남의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반면, 감정적 욕구가 끊임없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충족되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세상은 위안 받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하게 되며, 발달상의 여러 도전들을 자신있게 맞이하지 못하고 여러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Bowlby, 1973). 애착관계에 있어서의 저해는 만성적인 불안감, 불신감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신적 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Bowlby, 1982).

이렇듯, 초기의 안정된 애착관계가 아동에게 안정감, 위안, 예측가능성, 자신감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은 다가오는 새로운 발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갖게되며, 이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지된다. 먼저, 많은 연구들이 초기 애착관계가 이후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Ainsworth의 낯선상황 실험에서 안정된 애착관계를 보였던 22개월 된 유아는 어머니와 다른 성인에게 보다 협조적이었으며(Main, 1973), 두 살에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보다 열심이었고, 인내심이 있었으며, 보다 순종적이었다(Matias, Arend, & Sroufe, 1978; Erickson & Crichton, 1981). 또한, 초기 애착안정성과 인지 발달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유아는 자유놀이 시간에 보다 긴 주의집중 시간을 보여주었고(Main, 1973), 비교적 쉬운 도구사용 과제는 자신있게 해결하였으나, 보다 어려운 과제는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Matias et al., 1978). 초기 애착은 자아의 발달과도 관계가 있으니, 안정된 애착관계를 지닌 아동은 자아회복력(ego resiliency)을 지니고 있었으며(Arend, Gove, & Sroufe, 1979), 보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Waters, Wipman, & Sroufe, 1979).

이와 같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내적작업모델은 일단 형성되면 주로 의식세계 밖에서 조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은 이미 존재하는 모델에 동화되기 때문에, 전생애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Ainsworth, 1989; Bowlby, 1980). 내적작업모델의 지속성에 관한 실증적 지지는 영아기의 애

착 유형이 아동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박응임 · 유명희, 1997; Arend, Grove, & Sroufe, 1979; Cohn, 1990; Erickson, Sroufe, & Egeland, 1985; Main et al., 1985; Wartner, Grossmann, Fremmer-Bombik, & Suess, 1994)과 나아가 청년기와 성인기의 내적작업모델에 관한 연구들(Bretherton, 1985; Dozier, Stevenson, Lee, & Velligan, 1991; Kobak & Cole, 1991; Kobak, Cole, Ferenz-Gillies, Fleming, & Gamble, 1993; Kobak & Sceery, 198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일생에 걸쳐 지속되는 내적작업모델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적응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애착 관계의 중요성은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청소년 후기에 한층 더 두드러진다(Ryan, Solberg, & Brown, 1996).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안전기지가 되어 영유아기 아동의 활발한 탐색을 격려하듯이, 청소년 후기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에 대한 신념은 많은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는 이 시기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Kenny, 1987). 실제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가 후기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안정된 애착관계를 지닌 대학생들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며(Kenny, 1987), 보다 높은 사회적 능력감(social competency)을 가지며 (Mallinckrodt, 1992; Rice, Cunningham, & Young, 1997), 자아회복력은 높되 불안감과 적대감은 낮았으며(Kobak & Sceery, 1988), 진로 탐색에 있어 자아 효능감(self-efficacy)을 보여 주었다(Ryan et al., 1996).

그런데 청소년 후기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서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이전 성취 경험과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반영된 자아상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다(Hoelter, 1984; Rosenberg, 1965). 자신을 가치있고 유능한 존재로 지각하는 청소년은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청소년기를 능동적으로 잘 적응해나갈 수 있으나, 낮은 자아존중감은 적응적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게 된다(Gecas, 1972; Wylie, 1961). 의미있

는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Richman과 Flaherty(1987)도 의과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McCormick과 Kennedy(1994)도 부모에 대한 애착의 안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청소년 후기 부모에 대한 애착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간의 밀접한 관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는 22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에 따라 연구대상을 높은 안정성 집단과 낮은 안정성 집단으로 이분하였으며, 대학적응은 대학적응척도(SACQ; Baker & Siryk, 1984)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학교 소속감의 네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학문적 적응은 대학생이 대학이 부여하는 여러 가지 학문적 요구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사회적 적응은 대학 생활에서 맺게되는 인간상호적, 사회적 관계에서의 적응을 의미한다. 정서적 적응은 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대학생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나 그와 연관된 신체적 증상을 통해 측정된다. 학교소속감은 대학생이 소위 '대학'을 다니면서 느끼는 감정과 자신이 다니고 있는 특정 대학에 관해 느끼는 감정에 관한 것이다.

연구 결과 Rice 등은 부모와 높은 안정성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대학생들은 대학적응의 네 영역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으나, 낮은 안정성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대학생들은 네 영역에서 많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Lapsley, Rice와 FitzGerald (1990)도 123명의 대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은 대학생의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학교소속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대학적응 척도를 이용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Palladino & Blustein, 1994; Rice & Whaley, 1994)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청소년 후기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갖는 매개적 역할도 또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대학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아존중감이 차지하는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봄으로써 기존에 밝혀진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해 보고자 한다. 아직 국내에서 청소년기 나아가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애착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한국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은 서울시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381명의 남녀 대학생들(남학생 176명, 여학생 205명)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관한 것이기에 양친부모를 둔 366명(남학생 169명, 여학생 197명)의 응답만이 분석에 사용되

었다. 전체 학생의 평균 연령은 21.24세 였는데, 18~21세 학생은 213명(56%)이었고,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22~28세로서, 대부분이 청소년 후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학년별로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2학년이 62명(17.1%)으로 가장 작았으며 3학년이 106명(29.3%)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들의 전공은 매우 다양하여서 전체 학생을 대표한다 볼 수 있다. 사회계열이 78명(21.5%)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은 예술계열이 59명(16.3%), 자연과학계열이 58명(16%)이었으며, 인문계열, 공학계열, 가정계열, 사범계열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체육계열이 15명(4.1%)으로 가장 적었다.

### 2. 측정도구

#### 1) 애착 척도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IPPA는 청소년기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28개로 구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 문항과 23개로 구성된 친구에 대한 애착 문항 등 총 51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관련된 28 문항만을 이용하되,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각기 측정하였다. IPPA는 신뢰감(10문항), 의사소통(10문항), 소외감(8문항)의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착 점수는 신뢰감 + 의사소통 - 소외감에 의해 계산된다. 응답양식은 4점 척도의 Likert 양식으로,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범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Cronbach's  $\alpha$ 는 신뢰감 척도가 .85, 의사소통 척도가 .87, 소외감 척도가 .80 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경우는 신뢰감 척도가 .70, 의사소통 척도가 .76, 소외감 척도가 .75이었다.

#### 2) 자아존중감 척도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이

루어진, 총 10개 문항의 척도로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응답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며(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무수한 연구들이 이 척도의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주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4이다.

### 3) 대학적응척도

대학생의 대학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백지숙·도현심·박성연(1998)이 Baker와 Siryk(1984)의 SACQ(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SACQ는 학문적 적응(academic adjustment),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 개인적-정서적 적응(personal-emotional adjustment), 학교소속감(goal commitment-institutional attachment) 등의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총 67문항의 척도이다. 백지숙 등은 우리나라 대학 문화와 맞지 않다고 여겨진 9 문항(예: 나는 대학 기숙사에 사는 것이 좋다)을 제외하고 총 5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하위영역 각각에 대해 내적합치도에 의한 신뢰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체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13문항<sup>1)</sup>이 추가로 제외되어(학업적 적응에서 3문항, 사회적 적응에서 5문항, 정서적 적응에서 3문항, 대학 소속감에서 4문항), 최종적으로 45문항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학문적 적응이 .82(20문항), 사회적 적응이 .68(9문항), 정서적 적응이 .85(12문항), 그리고 학교소속감이 .65(8문항)이었다.

### 3.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의 한 여자 대학교를 선정하여 다양한 전공생들이 수강하는 교양과목 시간에 담당 교수의 주관 하에 250부의 질문지를 배부,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205부가 회수되었다. 또한 남학생들의 자료는 주변의 남학생

들로부터 질문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자원한 여학생들을 통해 수집되었다. 질문지에 학생의 이름이나 학생번호 등을 기입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였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표 1)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수	B	$\beta$
어머니에 대한 애착	.10	.25***
아버지에 대한 애착	.09	.28***
F	44.32***	
R <sup>2</sup>	.21	

\*\*\*  $p < .001$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함께 회귀식에 넣음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상대적 영향력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함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21%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아버지와 애착관계가 안정적인수록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아버지에 대

1) SACQ는 하나의 문항이 두 개의 하위영역에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한 애착( $\beta=.28$ )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25$ )보다 컸으나 그 차이는 매우 근소하였다.

## 2.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대학적응의 네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각기 실시하였다(표 2). 적응의 네 영역 모두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은 네 영역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대학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의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학문적 적응 총변화량의 13%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설명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 $\beta=.25$ )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15$ ) 보다 학문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16%를 설명하였으며, 영향력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 $\beta=.28$ ),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16$ )의 순이었다. 정서적 적응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14%를 설명하였으며, 아버지에 대한 애착( $\beta=.27$ )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beta=.15$ ) 큰 영향력을 보였다. 학교소속감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19%를 설명하므로 네 영역중 그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역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beta=.29$ )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beta=.20$ ) 영향력이 컸다.

## 3.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단계에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의 관계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인인 대학적응에 대해 독립변인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설명력이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통제되었을 때 어느정도 감소하는지 보기 위하여 첫 단계의 회귀식에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였다.

두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문제 2에서 밝혀졌듯이, 첫 단계 분석 결과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대학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학에 더욱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두 번째 단계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통제되었을 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대학적응의 네 영역 모두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대학적응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다(표 3).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간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역할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간의 관계에서는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Baron & Kenny, 1986).

〈표 2〉 부모에 대한 애착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수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학교소속감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어머니	.12	.15*	.08	.16**	.08	.15*	.07	.20**
아버지	.17	.25***	.11	.28***	.13	.27***	.09	.29***
F	24.48***		30.38***		27.62***		37.98***	
R <sup>2</sup>	.13		.16		.14		.19	

\*\*\*  $p < .001$  \*\*  $p < .01$  \*  $p < .05$

〈표 3〉 대학적응에 대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수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학교소속감	
	B	β	B	β	B	β	B	β
어머니	.04	.05	.04	.08	.03	.06	.04	.11
아버지	.10	.13*	.07	.18**	.07	.14*	.06	.18**
자아존중감	.92	.44***	.42	.35***	.60	.42***	.36	.39***
F	43.57***		36.09***		41.42***		47.33***	
R <sup>2</sup>	.29		.25		.28		.30	

\*\*\*  $p < .001$  \*\*  $p < .01$  \*  $p < .05$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후기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생애발달적인 측면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전 생애적으로 지속되며, 청소년 후기에도 애착관계는 여전히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청소년 후기 적응의 여러 영역 중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과 건전한 인성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Coopersmith, 1967; Harter, 1983)로 여겨졌으며, 대학이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후기 청소년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여겨졌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은 대학생일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정적 관계를 보여주는 기존 연구결과들(Armsden & Greenberg, 1987; Rice, 1990; Richman & Flaherty, 1987)과 일치하는 것으로, 애착대상(부모)에 대한 내적작업모델(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attachment figure)과 자아에 대한 내적작업모델(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self)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의 욕구에 반응적이며 자신을 수

용해주면, 그러한 존재로서 부모에 대한 내적작업모델을 가지게 될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스럽고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내적작업모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면, 부모가 자신을 돌보아주지 않거나 거부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라는 내적작업모델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73, 1980; Cassidy, 1988). 따라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은 대학생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작업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학적응 네 영역-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학교소속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과 적응 사이의 정적인 관계가 유아기나 아동기를 넘어 청소년 후기에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들(Lapsley et al., 1990; Palladino & Blustein, 1994;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적응의 네 영역 모두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대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Rice, Cunningham & Young, 1997)와 일치한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보다 큰 상대적 영향력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Chodorow, 1989; Rice & Whaley, 1994).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란 자녀들에게 가정 밖의 세계를 대변하는 존재로서 바

람직한 행동을 위한 규칙, 법, 기준들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또한 아버지의 행동영역이 주로 가정 밖인 반면,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은 가정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버지는 가정 속의 자녀를 일(직장)과 사회라는 외부세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가정에서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아버지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점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며, 그들과의 애착관계는 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대학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들(Schultheiss & Blustein, 1994; Ryan, Solberg, & Brown, 1996)이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 그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의 성과 연령을 통제하지 않았음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대학생의 성과 연령을 통제한 추후분석을 실시해보았으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 네 영역과의 관계에서는 부분적 매개역할을,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 네 영역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대학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 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대학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서만 영향을 미쳤다. 연구문제 2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관계 그 자체는 대학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의미있는 타자로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을 도와주어 대학이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그 자체만은 대학생들의 대학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다만 어머니에 대한 안정된 애착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의 기반이 되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대학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한편, 대학적응에 대해 아버지에 대한 애착, 어머니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이 갖는 상대적 영향력에서 자

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더 컸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학적응에 대해 직접적 영향력 보다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대학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대학적응에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아존중감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영아기와 아동기로 어느정도 제한되어졌던 우리나라 애착 연구를 후기 청소년기로 연장시켜,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과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적응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여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 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애착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시내의 한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일종의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전체적인 대학생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나아가 대학교에 다니지 않는 많은 청소년 후기의 젊은이들이 있기에 이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와의 현재 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청소년기의 연구에서 현재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이들이 유아기나 아동기에 맺었던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어떻게 지속되며, 현재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인애착면접(AAI: George, Kaplan, & Main, 1985)을 사용하거나 종단적 연구를 실시할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박용임 · 유명희(1997).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단기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18(2), 33-46.
- 백지숙 · 도현심 · 박성연(1998). 한국 청소년 후기 개체화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 89-102.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rend, R., Gove, F., & Sroufe, L. A. (1979). Continuity of individual adaptation from infancy to kindergarten: A predictive study of ego-resiliency and curiosity i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0*, 950-959.
- Armsden, G. C., & Greenberg, R. M.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 664-676.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3-35.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Chodorow, N. J.
- (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6-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Dozier, M., Stevenson, A. L., Lee, S. W., & Velligan, D. I. (1991). Attachment organization and familial overinvolvement for adults with seriou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75-489.
- Erickson, M. F., & Crichton, L. (1981). Antecedents of compliance in two-year-olds from a high risk sampl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oston.
- Erickson, M. F., Sroufe, L. A., & Egeland, B.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in a high-risk sample.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47-166.
- Gecas, V. (1972). Parental behavior and contextual variation in adolescent self-esteem. *Sociometry, 35*, 332-345.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5). The attachment interview for adul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 & P. 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275-385). New York: Wiley.
- Hoelter, J. W. (1984). Relative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on self-evalu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255-262.
- Kenny, M.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7-27.
- Kenny, M. E., Molianen, D. L., Lomax, R., & Brabeck, M. M. (1993).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s to view of self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 408-430.
- Kobak, R., & Cole, H. (1991). Attachment and meta-

- monitoring: Implications for adolescent autonomy and psychopathology. Paper presented at the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Kobak, R. R., Cole, H. E., Ferenz-Gillies, R., Fleming, W. S., & Gamble, W. (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 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Main, M. (1973). Play, exploration and competence as related to child-adult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Mallinckrodt, B. (1992). Childhood emotional bonds with parents, development of adult social competencies, and the availability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53-461.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18.
- Palladino, D. E., & Blustein, D. L. (1994).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48-255.
- Rice, K. G., Cunningham, T. J., & Young, M. B. (1997).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well-being: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89-101.
-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463-474.
- Rice, K. G., & Whaley, T. J. (1994).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within-semester stability and change in attachment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5*, 324-330.
- Richman, J. A., & Flaherty, J. A. (1987). Adults psychosocial assets and depressive mood over time: Effects of internalized childhood attachmen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5*, 703-71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an, N. E., Solbert, V. S., &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84-89.
- Schultheiss, D. E. P., & Blustein, D. L. (1994).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48-255.
- Wartner, U. G., Grossmann, K., Fremmer-Bombik, E., & Suess, G. (1994). Attachment patterns at age six in south Germany: Predictability from

infancy and implications for pre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1014-1027.

Waters, E., Wippman, J., & Sroufe,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

Wylie, R. C. (1961). *The self-concept: A critical  
survey of pertinent research literature*. Lincoln,  
Nebrask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